

스마트팩토리 통한 김치 세계화 나섰다

순천농협-텔스타홈텔 디지털트윈 기반 업무협약 “절임부터 양념까지 데이터 기반 최상의 맛 생산”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재)은 지난 7일 텔스타홈텔사와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김치공장 세계화 모델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란, 컴퓨터에 현실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화 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농협이 민간업체와의 김치시장 경

쟁에서 가장 큰 벽에 부딪히는 원인은 높은 원가로, 그 원가의 대부분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생산을 수작업에 의존해온 탓에 10톤의 김치를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경우 약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농협 강성재 조합장은 “중국산 알뭍 절임김치 파동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대한민국 김치 산업을 주도 하는 순천농협은 국산대비 30% 수준인 중국산 김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다”며 “순천농협 납도식 품만이 갖고 있는 김치제조 노하우를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하여 절임부터 양념혼합 및 숙성까지 사람에 의한 변동요소가 최소화 된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으로 최상의 맛을 가진 김치 생산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원재료는 현지 조달화 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방식을 적용, 대한민국에서 생산 운영 및 품질 관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세계 각국에 김치를 보급,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남 안심여행 50선’ 광양은 어디어디? 백운산휴양림·망덕포구·배알도 등 청정 관광자원 주목

광양시가 ‘전남 안심여행 50선’에 이름을 올린 백운산자연휴양림, 망덕포구, 배알도 등 청정 관광자원이 여행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백운산자연휴양림과 망덕포구, 배알도는 지난 2월, ‘전라남도 안심여행 50선’에 선정됐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전라남도가 발간한 홍보책자 ‘너의 쉼표가 되고 싶어-전라남도 안심여행 50선’에 실리면서 관광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원시림과 인공림이 어우러진 시크릿 포레스트로 산막, 황토방, 산림욕장, 아영장, 생태체험관, 어린이놀이터, 숲속의 쉼터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풍욕, 명상, 족욕, 아로마테라피 등으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치유의

숲’과 간단한 DIY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도 인기몰이 중이다. 성불, 동곡, 어치, 금천 등 천년 바람 찰랑이는 백운산 4대계곡과 백운산 둘레길 9개 코스도 지친 현대인들의 푸른 쉼표로 떠오르고 있다.

백운산 자락의 즐비한 산장에서 맛볼 수 있는 담백하고 고소한 닭숯불구이는 광양에서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으로 손꼽힌다.

최근 액티비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일대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예고하고 있다. 망덕포구를 잇는 현수교식 보도교와 망덕산~배알도 근린공원을 잇는 질트랙이 완공되면 배알도를 중심으로 산, 포구, 수변공원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심종섭 기자

순천시, 스토리가 있는 정원 작품전 ‘코리아가든쇼’ 개최

순천만국가정원서 10인 작가 정원 작품 전시...대상에 주광춘 작가 ‘초대장’ 선정



순천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코리아가든쇼’를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막했다.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주최해

온 코리아가든쇼는 우수 정원가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원작가 발굴을 위해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행사다.

이번 가든쇼는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 정원’이라는 주제로 정원 작품 10점을 오는 30일까지 전시한다. 역량 있는 작가들이 출품한 정원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 10점이 전시되며, 최종 심사를 통해 7일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최고작가상(산림청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전시장에는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정원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과 시민들의 마음에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휴식처와 안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써 정원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K-가든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순천시민은 정원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조사료 본격 수확...자급율 100% 달성

올해 생산량 4만5천 톤 예상 고품질·저렴한 가격 ‘일석이조’

보성군은 지난 6일부터 조사료 수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보성군 조사료 예상 수확량은 4만 5천 톤으로 5월까지 수확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수확된 조사료는 관내 280여 개의 축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계약재배 방식으로 1,875ha 규모의 농지에서 재배된 조사료 4만 5천 톤은

보성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12,700마리의 소(성축)에게 하루 10kg씩 1년간 급여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를 통해 보성군은 조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해 수입 조사료를 사용할 필요 없이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성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식품부의 지침이 무게 기준(6만 원/톤)에서 재배면적 기준(18톤/ha 1,080천 원)으로 개편되고, 품질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 예년보다 조사료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올해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제조운송비,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 종자대, ▲축산농가 근로임대비, ▲조사료 임모중 파종비, ▲조사료포 퇴액비 살포비 등 총 6개 사업에 41억 7,600만 원(보조 33억 6,800만 원)을 투입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조사료 사업은 겨울철 휴지기 땅을 이용해 농가에는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축산 농가는 고품

질 국내산 조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시책”이라면서 “2024년 조사료 수입 자유화를 대비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견고하게 다져놓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사료 경영체 및 경종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26억 원 중 10억 원을 선지급하였으며, 수확이 완료되면 최종 생산면적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전동 키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

여수시가 지난 10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그리고 전동키펴드 대여업체 6명의 대표들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여수시에는 6개의 대여업체가 약 920대의 전동키펴드를 운영하고 있

으며, 관광지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여수시는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수교육지원청은 초·중·고 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